

【 해외금융뉴스: 유럽 】

유럽 비공식 정상회담, 금융개혁에 대한 마감시한 설정

□ 11월 7일 유럽지역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임무를 IMF가 떠맡아야 하며,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마감시한 100일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이번의 정상회담은 11월 15일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 앞서서 금융위기 대처에 관한 유로지역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함.

* G20 정상회담에서는 국제금융의 기본 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혁하자는 '신(新)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포괄적 원칙이 도출될 전망이며, 국제표준의 새 회계기준 채택을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별로 이뤄지는 현행 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조율이 가능한 새 국제금융감시기구 설치 등이 제안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한 5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시장, 지역, 기관에 대해 예외 없는 감독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고, 규정 마련이 어렵다면 최소한 감시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의됨.

□ 「중앙은행, 감독자, 국제결제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화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의 활동을 IMF가 평가해야 한다」는 초기 제안이 각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IMF가 새롭게 탄생된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주축을 이룬다」로 축소되었고, IMF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G20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미루어짐.

○ 러시아는 IMF가 국제금융 혜택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지시하는 메니저가 아닌 단지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으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MF 역할 강화에 반대 의사를 피력함.

○ 영국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향후 글로벌 금융감독 조치가 자국의 금융시장을 불필요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위기시스템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였음.

(Financial Times 11/7)